

화상대회서 8억 3천만달러 투자유치 (매일경제 2005.10.12)

화상대회서 8억 3천만달러 투자 유치

제 8 차 세계화상대회를 통해 8억 3천만달러의 화 교자본 투자가 유치되고 1억 3천만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일 3일간의 세계화상대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갖고 대회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증대, 투자유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상담회 및 전시회에서 수출 계약 체결 1억 3천만달러, 수출상담 4억 5천 만달러 등 총 5억 8천만달러의 신규 사업 발굴이 이루어졌다.

또 8억 3천만달러의 투자를 유치, 화교 자본의 본격적인 한국진출 계기가 마련됐 다.

싱가포르 국영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센다스(Ascendas)가 물류 단지 및 부동산 개 발을 위해 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산자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중국계 미국 벤처캐피털인 WI 하퍼그룹은 정보기술(IT), 바이오벤처기업에 3천만달러를 투자하기 로 산자부와 MOU 를 체결했다.

중국 중창 텔레콤은 인천 차이나타운 개발과 관련 3억달러 투자의향서(LOI)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했다.

화상대회 기간의 관광수입은 항공비 5억원, 등록비 11억 8천만원, 숙박.관광지출 52억 4천만원 등 약 7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장관은 화상 투자자들은 차이나타운 건설 및 각 지자체의 개발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향후 투자유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상대회 전시관에 참여한 일산 차이나타운에는 베이징 유명 음식점인 취엔지더 등이 입주의향을 표명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생명코드인터내셔널(주)과 중국 베이징대 웨이밍 바이오테크 그룹이 조직공학, 유전자약물 분야 사업화를 위해 2천만달러를 공동투자해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인 '중국은행연합카드사', 한국의 BC카드와 3자간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중간 IT 협력분야로 차세대 IT 공동연구, 차세대 기술표준 협력, 국제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이 IT 포럼에서 제시됐다.

화상단체와 국내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가 민간차원의 한.화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전국공상업연합회 황명푸 주석은 전경련을 방문,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한.중 재계협력방안 논의했으며 홍콩 중화총상회와 한국벤처기업협회가 해외벤처기업간 협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화상간 미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설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현재 진행중인 무역.투자건의 성사율을 제고하는 한편 이번에 확보된 친한 유력화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산자부와 코트라(KOTRA) 내에 화상전담팀을 설치해 대회 성과를 관리하고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ksh@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0.12 17:02 입력

http://inews.mk.co.kr/CMS/headLine02/headline/6985009_3645.php